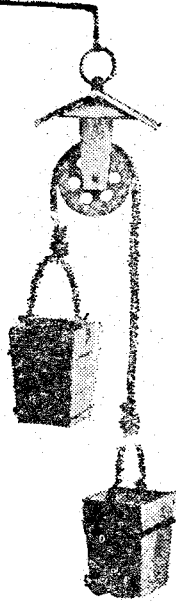


安 保 觀 念 과 企 業 精 神



太
完
善

(大韓商工會議所會長)

사리사욕의 時代는 지나가

우리가 32년전에 해방된 이후에 걸어온 발자취를 民族資本의 축적이란 側面에서 되돌아보면 무질서와 혼란과 6·25로 인한 파괴와 휴전후의 부흥기를 통해 특징적인 현상은 橫財의 時代, 즉 特惠의 連續이 있어왔고 거기 따른 벼락부자나 재벌들의 탈세, 族閥主義경영, 각종의 投機, 腐敗등으로 企業의 社會的인 責任과는 거리가 먼 傾向이 있었고 이래선 안되겠다해서 혁명이 일어났고 3차에 걸친 5개년경제계획이 수행됐다.

그 결과 지난 15년동안 輸出高는 약 2백배나 늘어났으며 4차계획이 끝나는 80년에는 2백억달러 수출이 예상되고 있다.

政治的안정위에 企業發展

현시점에서 생각할 때 여러가지의 不條理라는 副産物이 있기는 하나 民族자본의 형성에는 기업인들의 功이 컸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현재 가동중인 우리나라의 제조업체수는 2만 7천 7백개나 되고 그 기업규모도 날로 커가고 있다.

경제규모가 변모해가는 마당에 있어선 기업가의 理念도 달라져야 하며 사실상 달라져가고 있다.

오늘날 族閥經營의 마이너스 認識은 財界의 상식으로 때가 되고 있다. 그것은 한사람 또는 소수 족벌에 의한 경향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기업인 특히 韓國의 企業人精神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본과 경영이 엄격히 분리되고 왔

는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의 企業利潤의 極大化原則에 따른 자본주에 대한 최대 이윤의 配當, 고용인에 대한 보다나은 서비스, 그리고 고용확대와 기업이윤의 사회의 환원이라는 자유진영 共通의 흐름이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정신엔 또 한가지 플러스돼야하는 것이 있다. 정치적 安定과 國防上의 安全이 보장돼 있는 선진제국과는 달리 우리의 企業環境은 地政學的인 여건에 따른 共產傀儡集團의 武力南侵 위협속에서 存立하고 있다.

企業精神은 安保第一로

그러므로 우리의 기업정신은 근본적으로 「安保第一」이라는 至上命題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것은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始發點이라는 것을 銘心해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처해있는 특수한 환경을 무시한다면 제아무리 擴大再生産에 골몰해본들 우리의 國富는 生成되지 못한다.

우리의 과거와 현실에는 社會正義에 逆行하는 일부 企業人의 事例가 왕왕 있어 왔다. 두 말할나위도 없이 그들에게 一罰百戒의 엄한 철폐가 내려져야 한다.

「기업하는 놈은 다 도둑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주변에 많다. 그것은 少數의 잘못이 多數에 미친 한例다. 이러한 국민간의 不信風潮에 快哉를 부르는 것은 金日成뿐이다. 그러므로 反社會 企業人의 利敵分子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것이다.

내가 아는 어떤 企業人에게 『당신은 몇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하고 물어본적이 있는데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는 이렇게 말했다 『勞働者天國을 내 손으로 만들어 보고 싶소』

이것은 매우 훌륭한 企業哲學이다.

不信風土없애는데 앞장을

오늘날 이른바 「불우 이웃돕기 운동」은 사실은 기업인 자신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富의 偏在는 北傀가 노리는 통일 전선전략의 좋은 미끼로서 그네들의 反政府, 反資本家 선동책동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오늘날 企業家는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의 核心的인 存在다.

그러므로 『나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를 가져야한다. 그리고 스스로 安保의 旗手임을 다짐해야 한다.

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각박하고 비정하고 참혹하고 利己主義와 嫉視 亂舞하는 이 不信風土를 몰아내고 부드럽고 서로 아끼고 서로 돕는 명랑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케네디의 就任辭가운데 저 유명한 『국가가 내게 무엇을 해 줄것인가라는 것보다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말을 想起 하면 될 것이다.

◁ 資 料 ▷

◇ 77년도 양곡需給계획 <단위千섬>

區 分	쌀	보리	밀	기타	計	
供 給	前年移越	8,889	10,953	2,142	1,233	23,217
	生 産	36,215	13,033	714	8,901	58,863
	導 入	—	—	12,319	7,496	19,815
	計	45,104	23,986	15,175	17,630	101,895
需 要	當年소비	33,347	12,579	12,878	16,448	75,255
	次年在월	11,757	11,407	2,297	1,182	26,643
	計	45,104	23,986	15,175	17,630	101,892
自給率 (%)	108.6	103.6	5.5	54.1	78.9	